정교회주보

제2433호

2023.8.13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빤아기아 파라포르티아니 성당(사진)은 그리스 미코노스섬의 아름다운 해변에 자리 잡고 있으며, 5개의 성당이 모여 있는 복합 성당중의 하나이다. 1475년에 최초로 세워졌으며 17세기까지 계속 추가되었고,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보수 공사를 거쳤다. 성당은 비잔틴 양식과 토착 양식, 그리스 전통 양식과 서구 양식 등 총 4가지의 건축 양식이 혼합되어 건축되었다.

마태오 제 10 주일
구세주 변모 축일 종례일
성 막시모스 고백자(이장)
(제1조 • 조과 복음 10)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축일 제2 응송 ····· 178
- 제1조 찬양송 ····· 81
- 축일 입당송 ····· 178
- 축일 찬양송 ····· 178
- 축일 시기송 ····· 178
- 사도경 : 고린토 전 4,9~16 · (봉)202
- 복음경 : 마태오 17,14~23 ··· 114
- 축일 성모송 ····· 180
- 축일 영성체성혈송 ····· 180
- '우리가 참빛', '주의 이름이' 대신에 축일 찬양송 ··· 178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열망이 당신 가슴 속에서 횃불처럼 활활 타오른다면, 당신은 머지않아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라고 이페레처스 교부는 말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 심각한 질문에 대한 정교회의 대답은 무엇인가? 성서는 우리가 찾는 대답의 근거를 제공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잘못 해석될 수도 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정교회는 그리스도와 사도들로부터 이어받은 영원한 진리를 모든 세대를 위해 지켜오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 왔다.

이 신성한 작업을 위해 사용된 매개체들은 정교회 교부들의 글, (이단을 반박한) 공의회의 결정들, 각종 예식서, 성가 그리고 성화이다.

'구원으로 가는 길' 중에서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로께서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참으로 선한 것들이 실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희망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한마디로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따라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성 끼릴로스는 ‘믿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며, 믿음의 가치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있는 광범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농부가 땅을 일구는 것은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인데, 그러한 믿음 없이는 힘들고 고된 일을 하면서 인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선원들은 믿음을 갖고 항해를 하는데, 그것은 육지보다 출렁이는 바다를 더 좋아하며 언젠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자신들의 생명을 하나의 배에 신뢰하며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이 사람들은 각자의 믿음 안에서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다.”

믿음의 길은 마치 천국을 향하여 배를 타고 끝없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평온할 때도 있지만 바람이 불어 파도가 거칠어지면 침몰할 지경까지도 가게 되는 위험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적지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희망을 갖고 있고, 그 희망을 성취 시켜주실 하느님이 계시기에 실망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마태오 17,20)에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확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가 싹이 돋아 잎이 나서 자라게 되면 어떤 나무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되듯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면 그 믿음이 자라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영적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가르침 5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거만엔 재난이 따르고, 불손엔 멸망이 따른다.”(잠언 16,18)

구약성서의 잠언에 기록된 많은 격언들은 교만이라는 죄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데, 이는 수없이 많은 태도와 삶의 방식들 가운데서도 특히 위험한 것으로서 흔히 끝내는 누군가의 몰락과 굴욕을 낳게 됩니다. 위의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거만 또는 교만은 하느님을 떠난 채로 스스로를 자랑하며 내세우는 오만을 뜻하는 것이며, 아주 대조적으로 겸손과 비교됩니다.

따라서 교만이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멀어진) 불행한 운명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반면에, 그 반대편에 있는 겸손은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끌어주며, 영예와 의로움, 그리고 하늘나라에 다다르게 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밝아지고, 속에 걱정이 있으면 기가 꺾인다.” (잠언 15,13)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내 어렵고 속상하고 당황스러운 일들, 절망과 체념,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때로는 몰락과 파산 등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겪음으로 해서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우리를 갈갈이 찢어 무너뜨림으로써 이같은 상황들에 대처하고 적응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하루 또는 한 해 두 해 ‘더 나은 삶’과 ‘더 쓰디쓴 삶’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은, 그저 운명적으로 혹은 팔자에 따라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거나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각각의 시련과 슬픔, 장애, 실패, 고난 등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전주 성모 안식 성당 축일을 축하합니다

8월 15일, 성모 안식 축일을 맞이하는 전주 성당의 일라리온 신부님과 모든 신자가 주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중보로 항상 건강하고 더욱 더 성장하는 성당을 이루길 기원합니다.

주간 예배 안내

* 8월 15일(화) 오전 9시
  성모 안식 축일
  축일 조과 및 성찬예배
  광복절 영광식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잼버리 대회 성찬예배 거행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개최된 제25회 세계 잼버리 대회에는 전 세계에서 많은 정교인 스카우트 대원이 참가했습니다.

세계 총대주교청 관할 한국 정교회 대교구는 대회 참가자들에게 정교회를 알리기 위해 종교 활동 센터에서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바르톨로메오스 세계 총대주교께서 DESMOS(국제 정교인 스카우트 연합)을 통해 보내주신 축하 메시지는 8월 6일 구세주 변모 축일 성찬예배에서 대독 되었습니다.

이날 축일 성찬예배에는 20여 나라에서 200명 이상이 참례하였습니다.

소 식

전주 성당 성화 작업을 마치며

하느님의 축복과 성모님의 도움으로 전주 성모 안식 성당의 돔과 지성소의 성화 제작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와 중요성 있는 작업을 성화 작가 1명이 한다면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번에 성화 작가들은 불과 20일 만에 완성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결과는 소존 야누디스 교수의 지도로 그리스, 대만, 미국, 한국의 작가들이 협력한 결과입니다. 이분들의 봉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매일 음식 준비, 물품 구입 등 여러 분야에서 성심껏 봉사한 전주 성당의 일라리온 정종혁 신부와 데스피나 이언주 사모 그리고 신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작업 기간 동안 매일 긴급하게 대처해야 할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故) 소티리오스 대주교께서 “악마는 자신의 사악한 계획을 망칠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더 맹렬하게 공격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성화 제작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질병과 사고 등 심각한 문제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은 세상에 와 있는 그 적대자보다 더 위대하십니다.”(요한1서 4,4)라는 말씀대로 하느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보호로 성화 작업을 예정대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작업용 가설대를 철거하고 만물의 주관자, 하늘보다 더 넓으신 분, 예언자들, 의인들, 사도들과 교부들이 보일 때 성당은 '하늘'로 변모하여 우리도 한국에서 “당신께 바쳐진 성당 안에 있는 우리는 마치 하늘에 있는 것처럼 느끼나이다.”라는 성가를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가평 수도원 축일을 보내고

지난 8월 6일, 구세주 변모 수도원 축일 성찬예배가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와 예레미야 조경진 신부 집전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예배에서는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의 축일 설교와 축하 인사 말씀을 대독하였습니다. 이날 고 소티리오스 대주교의 축일을 맞아 성찬예배 후에는 묘소에서 추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오찬, 청소 등 축일 준비에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